

보도자료



보도일	2013. 6. 11(화) / 제한없음		
배포일	2013. 6. 11(화)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 (880-5054, 9072)
담당부서	(재)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문의	박근경 실장(880-5026) 황보혜민 팀장(871-1222)

제 목: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신양문화재단 위임식 개최

-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장학사업에 매진해온 신양문화재단을 위임받아 운영하게 됨에 따라 2013년 6월 11일(화) 공대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신양문화재단 위임식’을 개최하고, 오랜기간 서울대에 기부를 해온 정석규 신양문화재단 이사장(화학공학과 1952년 졸업)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재단의 향후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행사를 가졌다.
- 이날 행사는 오연천 총장을 비롯한 확대간부회의 보직자, 전·현직 학장단, 전 확대간부회의 보직자, 신양문화재단 관계자, 신양장학생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재단업무 업무협약과 정석규 이사장의 일대기 동영상 상영과 신양문화재단 소개, 학생들의 감사 동영상 상영, 장학생의 감사편지 낭독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정석규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사회에서 부를 축적하게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의 성과라고도 하겠지만, 남의 도움으로 이뤄진 것이니 축적한 부를 재물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순리”라며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목적사업의 수행능력이 극대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인사말은 정석규 이사장의 아들인 정종수 신양머그 대표가 대리

로 하였다.

- 1967년 태성고무화학을 설립하여 고무를 국산화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화에 기여한 정석규 이사장은 그동안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1998년 신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기부활동과 장학사업에 헌신해 왔다. 재단 설립 당시 후두암 판정을 받고 세차레나 수술을 받은 정석규 이사장은 해외 유명 대학의 발전상에 깊은 인상을 받고 특히 대학에 대한 기부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동안 신양학술정보관 I, II, III호관을 건립하는 등 서울대에는 약 155억원(건물 포함)을 기부하였다.

* 붙임: 정석규 이사장 인사말

<정석규 신앙문화재단 이사장 인사말>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오연천 총장님, 이장무 전 총장님, 그리고 모든 내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어릴 때부터 「이 사회에서 꼭 있어야 할 유익한 존재」가 되라는 아버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TOP의 존재가 되겠다는 신념을 갖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무인불승」, 「지성감천」의 생활신조로 꾸준히 노력하며 살아 왔습니다.

이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한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부(富)의 축적을 하게 된 것은 나의 노력의 성과라고도 하겠지만 남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축적된 재물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順理)인 것입니다.

본 신앙문화재단은 1998년 본인이 고회를 맞이하면서 평소에 생각해 오던 부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심하고 본인과 가족들, 관련기업체들만의 기부금 출연으로 기본재산 5억 4,900만원의 신앙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 출연하여 현재 기본재산 189억원의 중견재단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제 본 재단의 운영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발전기금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목적사업의 수행능력이 극대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건승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6. 11

신양문화재단 이사장 정석규